□ 인권영화제 조기종결, 경과를 알아본다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는 없다

문민시대 탄압 여전…인간 표현행위 족쇄 풀어야

우리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유엔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모든 민주법제도하에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국가라는 조직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지난 9월27일부터 홍익대학교에서 막이 올랐던 제2회 인권영화제도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불법행사로 규정되어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신문사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기본권탄압에 경종을 울리고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지난 9일 인권영화제 조기종결에 항의 상영중인 명동성당앞

검증 받지 않은 '표현의 자유'는 허락될 수 없는가.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유엔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과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그 누구의 간섭이나 제한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의 봄'은 아직도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듯하다.

지난 9월 27일부터 홍익대학교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폐막식을 하루 앞둔 3일 당국의 압력으로 조기 폐막되었다.

영화제 사무국 김정아(기획담당)씨는 "영화제 개막 7일째인 지난 3일 마포경찰서에서는 화제를 계속 상영할 경우 학생회간부 5명을 입건하겠다고 전했으며 할 수 없이 조기 종결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6, 70년대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인권영화제를 한층련 문제와 결부시켜 이를 악용하는 정부측은 각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7일 영화제 개최당시 대학측에서는 영화상영 장소인 와우관 등 3개 장소에 직원 5백여명을 배치해 문을 잠그는 등 영화제의 상영을 막고 전원까지 차단, 결국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발전기를 가동해 영화를 상영해야 했다. 이어 홍대측은 서준식 조직위원장을 고소했으며 ,서 위원장은 1일 마포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아 검찰측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상영을 중단한 이유는 인권영화제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행사이며, 이를 주관하는 홍익대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경찰의 확대수사 방침때문이다.

당초 영화제는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안기부와 문화체육부, 관할 경찰서의 압력으로 장소를 홍익대로 변경, 9시간 30분 짜리 프랑스 기록영화 '쇼아' 등 13개국 24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었다.

장소가 변경되자 홍익대 측은 행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집행위원회측에 알렸고, 상영불허 이유로 "주최측이 학교와 전혀 영화제 개최를 논의한 바 없으며, 상영되는 영화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영화제 박래군 사무국장은 "명백한 정부측의 인권 탄압이다. 홍익대 재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교육부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악이용, 학교 측에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사무국장은 "작년에는 인권영화제를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1만 5천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영화제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전심의제의 이름만 바꾼 새로운 법 조항으로도 규제를 받고 있어 참여인원이 작년의 절반수준인 7천여명에 불과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인권영화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명동성당에서 항의의 뜻으로 상영하지 못한 나머지 영화들을 상영했다. 그리고 오는 17일부터 3일간 명동 향린교회에서 인권영화제 출품작을 상영할 계획이며, 20일경부터는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지방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명동에서의 마지막 상영에는 약 80여명의 사람이 자리를 메웠으며, 이 영화제를 보기위해 왔다는 인덕전문대 최명희 (토목 2)양은 "인권영화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영화화한 것 뿐이며, 정부의 불허방침은 역사의 사실을 영화를 통해 알리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현실을 개탄했다.

올해 들어 인권영화제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제, 시민비디오 축제, 퀴어영화제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과 만화까지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부와 공안당국의 무차별적인 문화탄압이 건전한 민간행사에 족쇄를 채우는 구태를 언제까지 방관 할 것이며 바람직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최현일 기자〉

강 단 시 론

선택과 만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뷔페 식당을 가도 메뉴 선택을 해야만 하고, 음식의 맛이나 취향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다. 또한 '선택하는 기쁨' 이 있는 반면에 '선택해야 하는 괴로움' 이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누가 올 연말에 대통령으로 당선 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대단하다. 후보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택 받기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다. 우리나라의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토론회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각 후보자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유권자들은 연말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임 효 상
〈서반어아과 교수〉

인간은 '자기가 가지 않은 길' 에 대해서 무한한 동경을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는 선택해야만하는 강박감이 우리의 행동 반경을 위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 아쉬운 것은 항상 최선의 선택만을 고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차선의 선택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 체질이다. 차선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만을 고집하다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자주 보아 왔다. 어쩌면 우리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2원적 사고가 이러한 폐단을 가져 왔는지도 모른다. 최근 영국의 블레어 총리의 인기가 무려 90%까지 올라가 서구 지도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을때 우리는 한 정치인이 얼마나 그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 하는 평범한 질문을 던져 보게된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우리 나라의 명문대 졸업생들이 직장을 버리고 불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주위에서 모두 부러워 하고 평탄한 길이 보장되었다고 여겨지던 그들의 선택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달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종의 지식인들의 정신적 도피로 간주해 버리는 시각도 있다. 우리가 한번 선택한 길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들의 새로운 선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과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우리가 처해있는 대학 사회는 어떠한가? 극심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서는 우리의 대학 새내기들은 입학의 즐거움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그 테두리 내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 그들이 졸업후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을 때 기업들이 채용하는 선택 기준은 최근에는 물론 학점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성실도, 사회 봉사 경력등 다양하다. 예전에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꼴지 라는 말도, 아마도 이제는 이러한 선택기준의 다양화로 인해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에게는 보다 많은 자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도 이를 더한층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만족과 불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선택의 기준은 각 개인이 살아온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미래에 대한 비전에 의해 좌우된다. 21세기가 불과 몇 년 안 남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나가야 할 지에 대한 차분하고 냉정한 선택의 준비를 하루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페인어 속담에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는 말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충분할수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 것이다. 21세기를 대비한 전략적 선택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만 치열한 무한 경쟁시대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현장 활동대 활동 상황

환경보호활동, 우리가 앞장선다

▲지난 여름현장활동. '골프장건설반대' 를 외치며 시민에게 선전전을 펴고 있다

농활, 의활, 빈활 같은 말들에 비해 환활은 생소한 느낌을 준다.

환경현장활동의 줄임말인 환활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활동으로 스스로를 단련하면서 조직하고 투쟁하는 지역연대운동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학교의 환활모임은 '경희 환경현장활동대'. 96년 처음으로 환경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최초의 환경활동은 95년 연세대에서 주최했다.

이들은 자본의 모순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학생들이 연대투쟁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구체적으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현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여름 실시된 환경현장활동 당시 전국적으로 약 2천여명이, 우리학교의 담당지역으로 배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약 3백여명이 환경투쟁을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8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 중 57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건설계획인 골프장 1백26개가 완공될 경우 전체 골프장의 40%가 경기도에 위치하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갑자기 골프장의 시공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경희 현장활동대' 가 지난 2일부터 4일간 활동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차산리. 현장활동대는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코리아 트윈스라는 회사에 맞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차산리 주민들과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이 회사는 18홀의 골프장을 5개나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18홀의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30만평이 필요하며, 이 30만평의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6백~8백톤의 물이 필요하다. 농업용수와 식수의 부족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뿌려지는 농약의 양은 실로 엄청나다. 1년간 1ha에 뿌리는 농약이 47kg에 달하는데 이는 농사에 쓰여지는 양의 6배에 해당된다.

'경희 현장활동대' 의 주우진 (경영 2)군은 "현장에는 산을 헐어 나무를 베려는 공사 인부들과 이를 지키려는 주민들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물론, 물리적인 마찰도 종종 생긴다"며 "골프장을 건설하는것도 문제지만 건설도중 부도가 나는 경우 파헤쳐지고 깍여진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라며 골프장 건설의 폐해를 지적했다.

〈최현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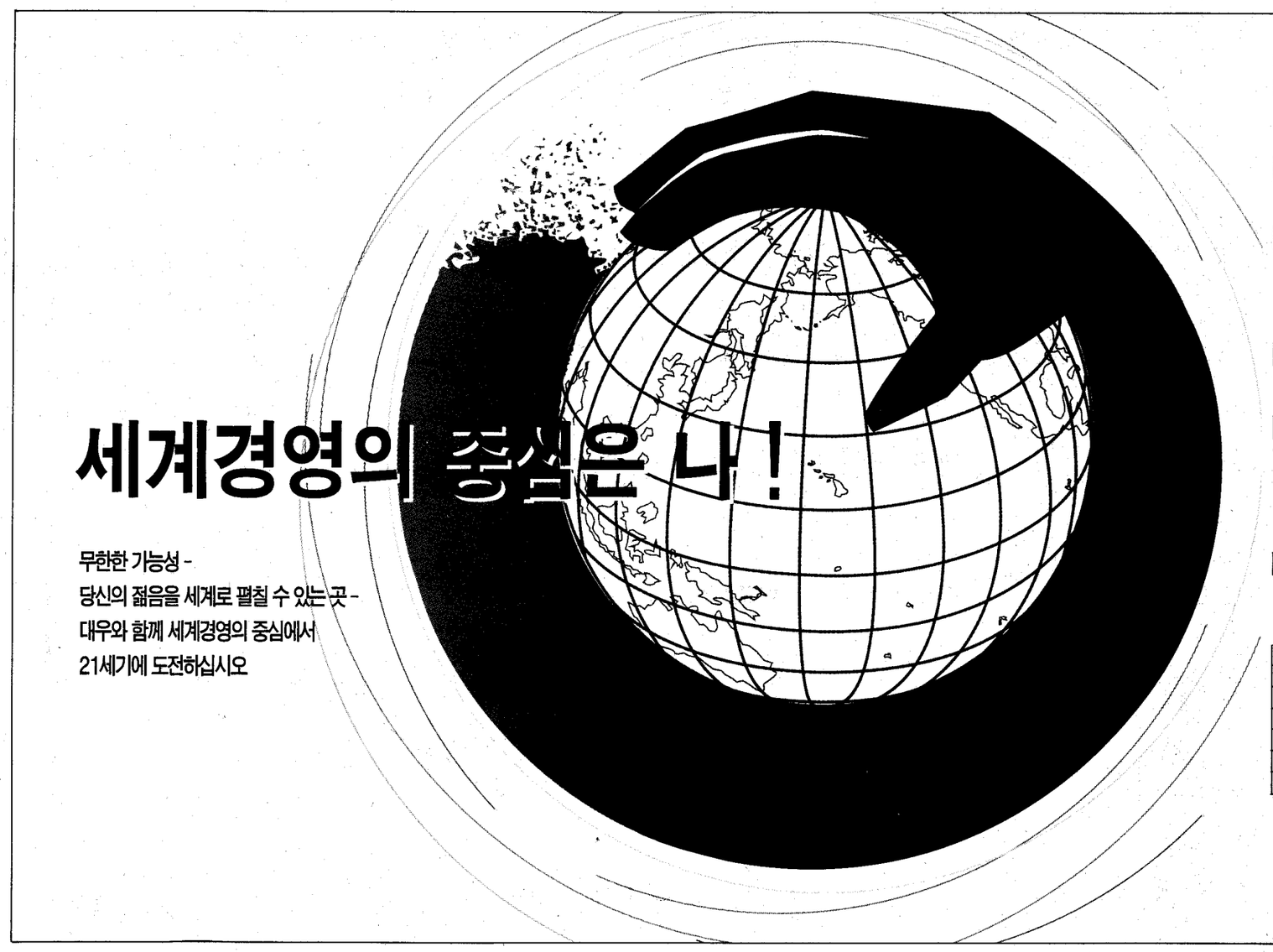
사회 단신

항공대, 인하학원 통합 반대

정석학원과 인하학원의 통합 반대 · 국공립 추진을 요구하는 항공대(정석학원)학생들의 집회가 지난 9, 10일 명동성당과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열렸다.

항공대는 통합안 발표가 관철될 경우 인하대의 항공학부나 인하대 화전캠퍼스로 변경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항공대생들은 정석학원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며 통합안 반대를 위한 집회를 계속 벌일 예정이다.



무한한 가능성 -
당신의 젊음을 세계로 펼칠 수 있는 곳 -
대우와 함께 세계경영의 중심에서
21세기에 도전하십시오

'97년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

1. 채용인원
1,500명

2. 지원자격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98년 2월 졸업예정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군복무중인 경우 '97년 12월까지 전역예정자)
• '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는 '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전형절차
서류심사 → 면접/적성검사 → 신체검사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소정양식)
• 대학교 성적증명서 (석사 이상은 대학원성적 포함)
• 영어 및 외국어시험 성적표 사본,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5. 입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접수기간 : '97년10월 21일(화) -10월 28일(화) 09:00-17:00
(토요일은 12시까지, 일요일은 제외)

전국	각 대학 취업정보실	
서울	대우센터빌딩 1층	(서울역 앞)
부산	대우증권 범일동지점	(부산시 동구 범일동 대우증권빌딩)
대구	대우증권 대구지점	(대구시 중구 남일동 대우증권빌딩)
광주	대우증권 광주지점	(광주시 동구 금남로 대우증권빌딩)
전주	대우증권 전주지점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대우증권빌딩)
대전	대우증권 대전지점	(대전시 중구 은행동 대우증권빌딩)
청주	대우증권 청주지점	(청주시 북문로 1가 대우증권빌딩)
춘천	대우증권 춘천지점	(춘천시 조양동 대우증권빌딩)
제주	대우증권 제주지점	(제주시 일도1동 대우증권빌딩)
인터넷	대우그룹 홈페이지	(http://www.daewoo.co.kr/)

• 접수처
- 접수창구 : 대우센터빌딩 1층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00-71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 대우인력관리위원회

6. 채용회사

분야	회사
무역 • 경공업	(주)대우 무역, (주)대우 부산
건 설	경남기업(주)
중공업 • 조선	대우중공업(주)종합기계, 대우중공업(주)조선해양, 한국산업전자(주)
자동차	대우자동차(주), 대우중공업(주)국민차, 대우기전공업(주), 대우정밀공업(주), (주)대우자판
전자 • 정보통신	대우전자(주), 오리온전기(주), 대우통신(주), 대우정보시스템(주)
금 융	대우증권(주), 대우할부금융(주)
전문연구소	고등기술연구원, (주)대우경제연구소

• (주)대우경제연구소는 경영 · 경제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에 한해 지원가능함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우함

7. 채용정보 안내
• 인터넷 http://www.daewoo.co.kr/
• PC통신 초기화면 공지사항 참조
• ARS (02)700-2119 (가정용 전화로 이용)

DAEWOO